

우리고장의
역사와 문화유적
이야기



향토문화유적 교재를 발간하며...

의왕(義王)은 조선시대 광주목 의곡(義谷)면과 왕륜(王倫)면의 앞글자를 합쳐 지명이 유래되었습니다. 그 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의왕면과 의왕읍을 거쳐, 1989년 의왕시로 승격된 이래 오늘날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도시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혜의 녹지환경과 주거환경이 조화롭게 들어서있고, 우수한 교육환경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의왕이 특별한 역사와 문화유적을 가진 도시로서의 면모를 조명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우리 고장의 향토문화유적을 고대사회에서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시대별로 나열하고, 사진자료를 함께 수록하여 읽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의왕의 인물에 대해서 구성해보았습니다. 임영대군을 비롯한 안자, 김유, 채세영 등의 훌륭한 인물들의 정신과 업적이나 그들과 관련된 유적 등에 대해 기술하여, 정신적인 유산을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의왕의 문화유적으로는 청계사와 같은 대표적인 사찰과 동종, 목판 등의 문화재, 모락산성터와 사근행궁터의 중요한 역사적 사료, 청풍김씨사당과 안자묘와 같은 향토유적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의왕의 향토문화유적을 우리 청소년들과 시민여러분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교재와 동영상 자료를 제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교재와 동영상을 활용하여 앞으로 관내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향토교실'을 운영하여 의왕의 향토사 대중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12

의왕문화원장 이 종 훈

01 고대사회 - 청동기시대

오봉산 이동 지역에서 3000년 전 작은 마을이 발견되었어요.03

02 삼국시대 - 백제

모락산 정상에 수도를 방어하기 위한 백제시대의 산성이 있어요.13

03 고려시대

고려말 문신 조인규가 청계사를 중창하고 자신의 원당으로 삼았어요.23

월암동에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리학을 들여온 안향의 사당이 있어요.28

04 조선전기

능안마을에 세종대왕의 넷째 아들 임영대군의 묘역과 사당이 있어요.35

05 조선후기

왕곡동 청풍 김씨 문중에서 6명의 정승을 배출했어요.43

고천동에는 정조대왕이 쉬어가던 사근행궁이 있었어요.49

1894년 천주교인의 피난처 하우현에 성당을 지었어요.54

06 일제강점기

1919년 3월 31일 밤

의왕면사무소 앞에서 주민 800여 명이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어요.61



고대사회 - 청동기시대



고대사회 - 청동기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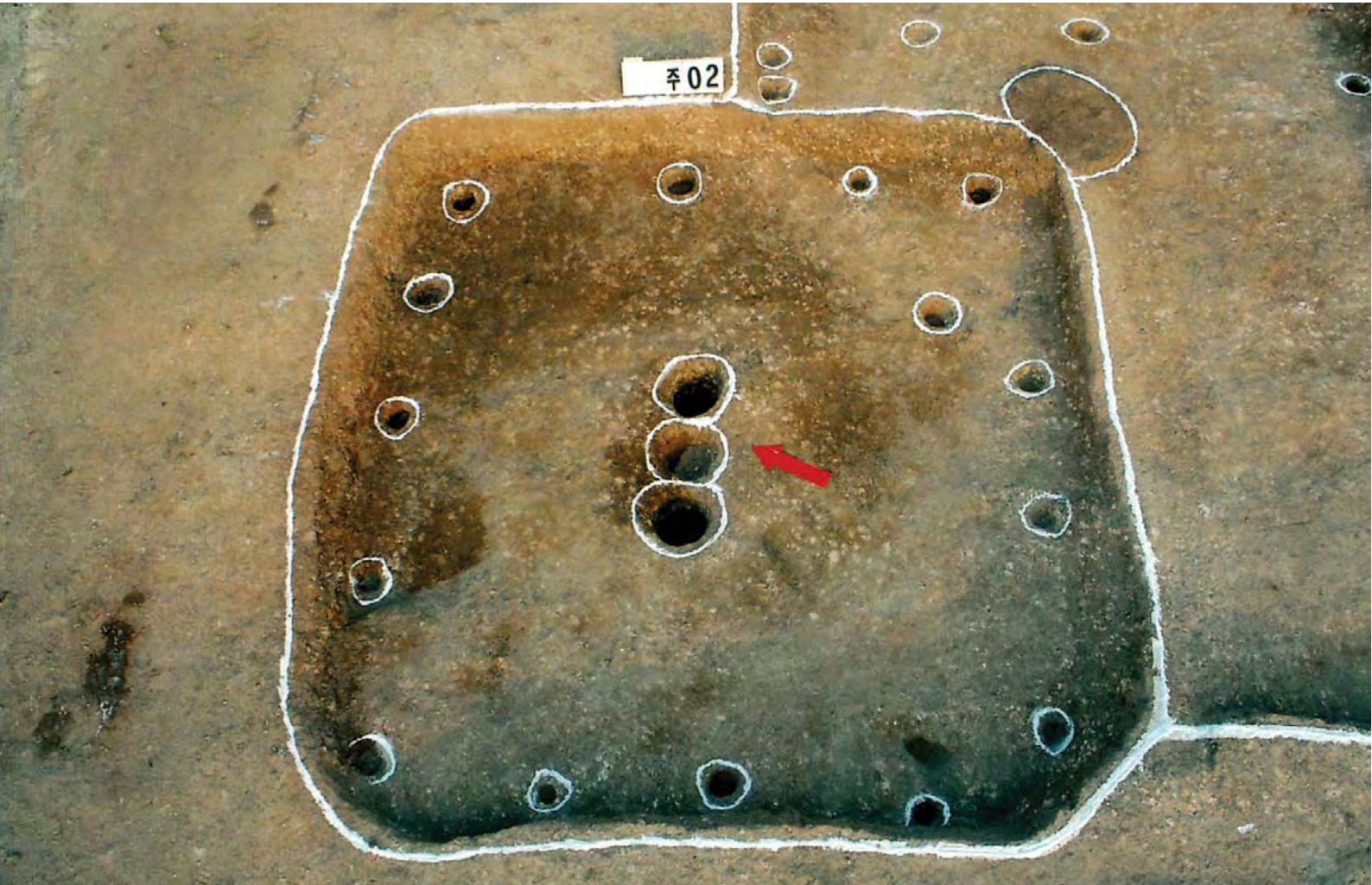
오봉산 이동지역에서 3000년 전
작은 마을이 발견되었어요.

■ 의왕시 이동 오봉산 청동기 유적 및 고인돌

의왕시 이동 오봉산 청동기 유적은 경기도 의왕시청 뒤편 오봉산 남쪽 봉우리에 서 서쪽으로 내려오는 능선의 끝자락인 이동 일대에 위치하고 있어요. 중심 유적은 청동기시대 집터인데, 토기와 석기 같은 유물도 발견되었어요. 청동기시대 주거지 13동을 비롯하여 통일신라시대 이후 조성된 돌널무덤(석관묘) 4개도 확인되었어요. 돌널무덤은 고인돌보다 앞선 청동기시대의 무덤양식이지요. 이것으로 보아 청동기시대에 사람들이 이곳 이동 지역에 작은 마을을 이루며 생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 의왕시 이동 오봉산 청동기 유적 전경 〉





〈 집터 전경 〉

▶ 집터

이동 청동기시대 유적지에서 발견된 집터의 형태로 보면, 오봉산 서쪽 끝자락 능선 정상부에 위치하여 주변을 둘러보기 좋고 관리와 통제가 쉬운 곳에 있는 가장 큰 집터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다른 집터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마을의 지도자 또는 유력자와 그의 가족공동체가 살고 있는 가장 큰 집터를 중심으로 작은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여줍니다. 청동기시대부터는 계급이 발생하여 지배하는 자와 지배를 받는 사람들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지요. 청동기시대의 집터들은 대체로 앞쪽에 시냇물이 흐르고 뒤쪽에는 바람을 막아주는 야산이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지요. 청동기시대에 이곳 이동 오봉산 구릉에 모여 생활한 이유는 넓게 펼쳐진 들판과 그곳을 가로지르는 맑은 냇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청동기시대로 오면서 둥근 반지하 형태의 움집이 직사각형이 되고 점차 땅위 움집으로 변화되었어요. 이곳 집터에서는 불을 피우던 화덕, 냉장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토기 저장공, 집의 벽체, 지붕을 지탱하는 기둥 구멍의 흔적도 확인되었지요.

▶ 생활도구

청동기시대라고 해서 농기구를 청동으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청동이 매우 귀하기 때문에 이 시기의 농기구는 돌로 만든 석기를 사용했어요. 철기시대가 되어야 비로소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돌을 갈아서 만든 간석기는 신석기시대 초기부터 사용하여 왔어요. 하지만 청동기시대에 들어와 보다 많이 사용되고 종류도 다양해져요. 청동기시대에 간석기는 일상생활도구로써 삶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어요. 나무를 베거나 다듬는데 이용된 돌도끼와 돌끌, 무기와 사냥도구로 쓰인 간돌검과 간돌화살촉 등이 발견되었어요. 간석기들의 모양이 매우 완전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간석기를 사용한 이유는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하고 농경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농경지를 얻기 위해 나무를 베거나 집을 짓기 위해 목재를 다듬는 데에는 뿔석기보다는 간석기가 훨씬 효과적이랍니다. 간석기는 날이 날카롭고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도구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다양한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고, 여러 번 사용해서 무디어지면 다시 숫돌에 갈아 날을 세우기도 쉽답니다.

〈간석기〉

- ◆ 돌도끼 : 신석기시대에는 몸 전체를 때려서 만들거나 날 부분만을 간 도끼였으나, 청동기시대부터 몸체 전체를 매끈하게 갈아 만든 돌도끼가 널리 사용되었어요.

- ◆ 돌끌 : 나무에 구멍을 뚫거나 다듬는데 쓰는 연장으로 돌도끼의 일종이에요.
- ◆ 간돌검 : 돌을 갈아서 만든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기로 찌르거나 베는데 사용하였어요.
- ◆ 간돌화살촉 : 돌을 갈아서 만든 화살촉으로 사냥을 위해 주로 사용했으나 전쟁무기로도 쓰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 ◆ 반월형돌칼 : 주로 벼이삭을 따기 위해 사용해요.

〈 생활도구 사진 〉



- ◆ 숫돌 : 연장을 가는데 사용하는 돌이에요.

이동 청동기 집터에서는 토기도 발견되었어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발달한 것이 바로 토기입니다. 토기는 물과 불에 강해서 먹을 것을 저장하거나 조리할 수 있어요. 농사를 지어 거두어들인 곡식이나 열매를 보관하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고 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했어요. 토기를 발명함으로써 음식을 끓여 먹는 등 가공하는 방법이 발전했고, 음식물의 종류도 많아졌어요.

〈토기〉

- ◆ 골아가리 구멍무늬토기: 구멍무늬토기는 토기 입술 바로 아랫부분에 그릇 주위를 돌아가며 일정한 간격으로 둥글고 작은 구멍을 뚫어 장식한 토기에요. 구멍이 완전히 뚫린 것도 있고 절반만 뚫린 것도 있지요. 청동기시대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된 토기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 ◆ 호형토기 : 몸체에 비하여 바닥이 좁고 배가 부르며 아가리가 밖으로 바라진 형태의 토기입니다. 충청남도 부여군 송국리 유적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어 그 유적의 이름을 따서 송국리형토기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중부이남 지역에 광범위하게 출토되며 초기 철시대까지 그 전통이 이어집니다.





〈 오봉산 이동 고인돌 〉

▶ 오봉산 이동 고인돌

우리나라에는 고인돌이 3만 여기에 이르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조밀한 분포권을 보여주는 고인돌 전시장, 고인돌의 나라와 같습니다. 형식도 다양하면서 북쪽에는 북방식, 남쪽에는 남방식이 많아요. 고인돌은 단순한 돌이 아니에요. 생활용품이나 의례용 장신구 물품, 무기류와 농기구 등이 발굴되어져 나온 고인돌은 당시의 생활상을 알 수 있게 해주고, 그곳에서 발굴된 토기와 청동기 시대 동검 등은 우리 조상의 사회 경제 문화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사의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고인돌이란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큰 바위(돌) 아래를 3~4개의 돌로 괴여서 받치고 있다고 해서 ‘고인돌’ 이라고 해요. 고인돌은 대부분 무덤으로 쓰이고 있지

만 공동무덤을 상징하는 묘표석 또는 종족이나 집단의 모임 장소, 의식을 행하는 제단으로 사용되는 것도 있어요.

오봉산 남쪽 정상에서 남서쪽 능선 중턱에 위치한 고인돌은(이동 산 45-1번지 일대) 의왕 이동 청동기시대 집터와 관련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봉산 고인돌은 구체적인 발굴 보고는 아직 없어요. 덮개돌의 크기는 238×195×40



cm로 대형은 아니지만 화강암을 정교하게 다듬어 만들었고, 지름 2~3cm의 성혈(性穴, cupmark)도 있어요. 성혈이란 다산과 풍년 등을 기원하며 바위에 돌로 문질러 생긴 작고 얇은 구멍을 말해요. 쑤돌은 4개가 있는데 서북쪽 쑤돌은 덮개돌과 같은 재질의 돌이고, 나머지 3개의 쑤돌은 근래에 다른 곳에서 옮겨온 것으로 보여요. 쑤돌은 약 40×50cm 크기로 지상에 노출된 상태로 덮개돌을 받치고 있어요. 이동 고인돌은 산 정상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오봉산은 높지 않은 산으로 고인돌과 같은 석질의 바위들이 주변에 많이 널려있어 덮개돌을 구하는데 힘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단의 기능으로 이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더 조사해 보아야 한답니다.

이외에도 청계동, 왕곡동, 오전동, 삼동 지역에서도 쑤돌이 없는 개석식 고인돌 유적이 발견되고 있어요.



여 백



02

삼국시대-백제

여 백



삼국시대-백제

모락산 정상에 수도를 방어하기 위한 백제시대의 산성이 있어요.

한성(지금의 서울)은 한 나라의 도읍지로 매우 적당한 곳이에요. 한강 유역은 사람이 살기에 좋은 들판이 펼쳐져 있고, 강을 이용하여 전국의 물자를 실어 나를 수 있어요. 한강은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천연의 방어물이 되어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에요. 고구려와 백제, 신라 등 세 나라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한성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력이 세다는 것을 의미해요. 한강을 통해서 중국과 교류를 할 수 있고, 다양한 선진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삼국시대에 한성과 한강유역을 가장 먼저 차지한 나라는 백제였어요. 백제의 시조 온조왕(?~28)이 기원전 18년에 이 근처를 백제의 수도를 삼은 이후 점차 나라의 기틀을 잡아갔습니다. 한강유역의 기름진 땅과 편리한 교통의 요충지라는 장점을 살려 주위의 다른 나라와 적극 교류도 할 수 있었어요. 백제의 전성시대는 근초고왕(?~375)과 근구수왕(?~384) 부자의 시절(346~384)이었어요. 이 시기에 백제는 왕권을 강화하고, 맹렬하게 주위로 영토를 넓혀 나갔어요. 특히 북으로는 고구려를 밀어붙여, 371년 평양전투에서는 고구려 고국원왕을 전사시키기도 했어요. 남쪽으로 영토를 넓히려는 고구려를 막아내고, 우리나라 서쪽지역을 차지하여 전성기를 맞이하였어요. 근초고왕 때에는 박사 고흥이 역사책 『서기』를 편찬하여 백제 사람들의 자긍심을 높였어요. 국력이 강해진 백제는 동진과 왜와도 외교관계를 맺으며 국제적으로 지위를 확보했어요.

백제는 한성을 수비하기 위해 한강 유역의 구릉에 흙을 쌓아 몇 개의 토성을 만들었어요. 3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축조된 이 성들을 우리는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이라고 불렀어요. 이곳은 백제의 수도인 위례성이라고도 하고, 또는 적을 경계하고 방어하거나 공격을 준비하기 위한 방어성이라고도 해요. 백제는 주요 두개 성 주변에 여러 개의 성들을 설치했어요. 북쪽으로 고모리산성(경기도 포천)과 월릉산성(경기도 파주), 남쪽으로 설봉산성과 설성산성·망이산성·파사성 등, 서쪽으로는 모락산성과 반월산성 등이 있어요. 이러한 성들은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뻗어나가는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 산성들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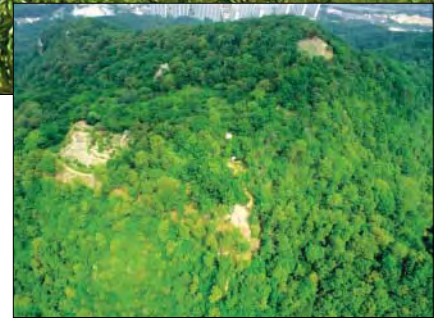
한성기 백제의 주요 산성은 산간지대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상부를 중심으로 성을 만든 점이 특징이에요. 백제 온조왕은 “험한 곳에 의지하여 나라를 지키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이치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한 예의 하나로 축조된 산성이 바로 우리 의왕시의 ‘모락산성’이에요. 현재 모락산성은 경기도 지방기념물 제216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모락산성 북쪽에 해당하는 안양시 귀인동에서는 백제 주거지가 확인되었고, 남쪽의 의왕시 이동과 부곡동에서는 세발토기·단지·장군 등의 백제 토기와 생활 유적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면 모락산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 모락산 전경 〉



〈 모락산 정상 전경 〉

■ 한성기 백제의 모락산성

▶ 모락산성의 위치와 규모

모락산성은 오전동과 내손동 경계에 위치하는 모락산(해발 385m) 정상부 봉우리를 빙 둘러싸고 조성된 테뫼식 산성이에요. 모락산 정상부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사다리꼴 모양으로 산성을 만들었어요. 성벽의 전체 길이는 878m이며, 북·동·남벽은 비교적 정연한 직선을 이루고 서벽은 능선과 계곡부의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렸어요. 축조방식은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면서도 부분적으

로 바위를 깎아내 수직 경사면을 만들거나 흙을 이용하여 필요한 부분을 쌓아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동벽과 서벽 바로 밑으로 각각 우물로 쓰이던 샘터가 한 곳씩 있어요. 모락산성의 성벽 규모와 시설물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모락산성 성벽 규모와 시설물 현황>

성 벽	길이(m)	높이(m)	시 설 물
동벽	177	3~7	동치성, 동망대지
북벽	302	2~5	북문지, 북치성, 북망대지
서벽	219	2~5	서문지, 서치성
남벽	180	2~5	남치성
전체둘레	878		

▶ 모락산성의 백제유물

아직까지 완전한 발굴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수집된 모락산성의 유물 대부분 이 백제시기의 토기류 입니다. 적갈색의 연질타말문토기와 회청색 격자타날문토기, 회청색 승석문토기와 조족문토기를 비롯하여 커다란 항아리(대옹)와 오각형의 목이 짧고 작은 항아리(단경호)도 발견되었어요. 이들은 대부분 음식과 식수를 담아두기 위한 저장용 토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발견된 옹과 호의 제작 기법과 조족문토기 등의 출토로 볼 때, 백제 한성기 토기 형성이 완료된 시기인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중·후반에 모락산성이 이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현재 의왕시에서는 모락산성을 복원, 보존하고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모락산성 종합정비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요.

모락산성 유물



〈 대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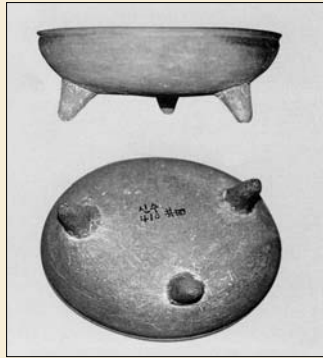


〈 단경호 〉

이동과 부곡동 백제 유물



〈 단지 〉



〈 세발토기 〉



〈 장군 〉

▶ 모락산성의 역할

모락산성은 한성기 백제시대 초기에는 백제의 중앙세력이 경기도 남부지역으로 진출할 때 중요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고대 국가의 기틀을 확립한 뒤에는 풍납토성을 방어하는 도성방어체계의 일환으로써 도성의 서남부 지방의 교통로를 통제하고 유사시에 적의 침투로를 배후에서 견제하는 방어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했어요.

〈 모락산 서쪽 능선과 치마바위 〉



〈 모락산 동굴 〉

▶ 모락산 전설

*모락산 동굴 관련 전설

임진왜란 때 마을 주민들이 모락산 서쪽 능선 치마바위 밑 동굴에 숨어있었는데,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로 말미암아 왜구에게 발각되어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이러한 전설에 따라 모락산은 ‘몰압산’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 『정간공자산보행장』의 〈정간공분산도〉 〉

*임영대군 관련 전설

세종대왕의 넷째 아들 임영대군은 그의 형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에 등극하자 모락산 동쪽 현재 능안마을로 피해 내려와 살았다고 해요. 그는 모락산 정상 바로 아래 토굴에서 지내면서 매일 산꼭대기 큰 바위(사인암)에 올라 한양을 바라보면서 망꺽례를 올렸다고 해요. 훗날 그의 후손들은 임영대군을 기리며 산 이름을 모락산(慕洛山)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 모락산 정상에 설치된 한국전쟁 전투도와 추모비 〉

<참고> 한국전쟁과 모락산

한국전쟁 때 1951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한국군과 유엔군은 연합하여 모락산을 차지하고 있는 중공군과 큰 전투를 전개했어요. 이 전투에서 많은 한국군(사망-70명, 부상-200여 명)과 중공군(사망-663명, 포로-9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 백



03

고려시대

여 백



고려시대

고려말 문신 조인규가 청계사를 증창하고 자신의 원당으로 삼았어요.

조인규(1237~1308)의 가문은 본래 유이민의 후예로 양인 농민 출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려의 재상이자, 왕의 장인이었으며, 아들들과 사위들은 장군과 재상과 같은 고위직에 오르는 등 고려에서 권세가 대단했던 사람이었어요.

1231년 몽골군의 침략으로 시작된 30년에 걸친 대몽항쟁 기간을 거친 뒤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면서 고려는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어요. 충렬왕을 시작으로 고려의 왕들은 원나라의 황제의 딸과 결혼하고 원 황제의 부마(사위)가 되어 고려 국왕들은 국가의 주권을 침해당했어요. 이와 같은 고려와 원의 관계로 몽골어 통역관의 수요가 급증하자 조인규는 몽골어 양성기관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몽골어에 통달했다는 명성을 얻었어요. 이후 충렬왕이 세자로서 원에 갈 때 그를 수행하여 왕과 친분을 쌓았고, 충렬왕이 몽골 공주와 결혼해 돌아온 뒤에는 장군에 임명되었어요. 탁월한 몽고어 통역 실력으로 원나라 세조에게도 인정을 받아 고려에 있으면서 원나라의 관직인 선무장군 왕경단사관 겸 탈탈화손에 임명되어 정치적 지위가 높아졌어요. 원나라의 일본 정벌에 고려의 사정을 잘 보고한 공으로 토지와 노비를 받고 그 자손들은 관직에 임명되었어요. 그렇지만 고려의 풍속을 바꾸려는 일을 막고, 충렬왕이 동녕부를 되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그의 딸이 충선왕의 비가 된 뒤에는 고려 수상의 자리에까지 올랐어요.

조인규는 정치적 출세와 더불어 불교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조인규는 5남 4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후일 아들들은 승려와 재상이 되었어요. 그는 자식들을 위해 1284년 청계사를 원당으로 삼아 그들의 세력 근거지로 만들고, 수원 만의사도 원당화하였어요. 청계사를 중창할 때 임금을 위한 복을 축원하기 위하여 금을 사용하여 불경을 만들고 많은 불상을 그럴만큼 청계사에 큰 애정을 가졌어요. 그러나 원의 간섭기에 고려의 불교는 승려들에 의해 토지점병과 고리대금업, 군역 도피의 소굴 등이 되어 그 부패가 심해져서 고려 말 신흥사대부층의 성리학자들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었어요.

▶ 청계사

청계사는 천년고찰로 신라시대에 창건되었다고 하나 자세한 내력은 알 수 없어요. 원(元)의 간섭기인 1284년(고려 충렬왕 10년) 고려 승지이자 동시에 원 나라의 관직을 가지고 있던 조인규가 막대한 사재를 들여 청계사를 다시 세우고 평양 조씨 문중의 원당으로 삼았어요. 천태종 계열의 청계사는 1407년(태종 7년) 조선

〈 청계산과 청계사 〉





〈 청계사 전경 〉



〈 조인규사당기비 〉



〈 청계사 사적비 〉

의 자복사(資福寺:국가에서 종파별로 지방에 지정된 절)가 되었으며, 세종 때에는 왕자들이 내려와 불경을 외우기도 했어요. 연산군이 도성 안의 모든 사찰을 폐쇄했을 때 봉은사를 대신하여 잠시 선종본찰의 기능을 수행했어요. 그러나 광해군 때 폐세자가 절을 차지하고, 전답과 노비를 관이나 세도가들이 빼앗아 크게 쇠락한데다가 1689년(숙종 15년) 산불로 전각이 거의 소실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어요. 그해에 성희를 중심으로 한 불제자들이 곧바로 증건하면서 조인규의 후손 조운이 비문을 짓

고 생원 윤창적이 써서 〈청계사사적비〉를 세웠어요. 이후 한때 용동궁의 원당이 되기도 했으며, 조인규의 후손으로 정조의 총애를 받던 조심태가 출자로 증창되었으나, 1876년(고종 13년) 다시 화재로 법당이 소실되기도 했어요.

구한말에 극락보전을 새로 지으며 절의 세력이 확장되었으나 일제 강점기에 중

교 탄압정책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해오다가 1945년 광복 이후 여러 주지들의 노력으로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어요. 청계사는 한국 근대 불교의 중흥을 가져 온 경허 선사가 출가하였고, 그의 제자 만공 선사가 주석했던 유서 깊은 사찰로 한국 불교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에요.

청계사는 최근에 새로 증창하면서 사찰의 모습이 크게 바뀌었어요. 경내에는 극락보전을 비롯하여 범종각·지장전·삼성각·요사채 등의 건물이 들어서 있으며, 지장전 우측에는 거대한 와불이 조성되어 있어요. 특히 극락보전 안에는 중앙에 아미타여래좌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위치하고 있으며, 뒤쪽으로 19세기 중반에 제작한 아미타후불탱이 자리하고 있어요. 청계사는 문화관광부에 의해 전통사찰 제35호 및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6호로 지정되어 보존 관리되고 있어요. 청계사에서는 보물 제11-7호인 동종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35호인 목판 등의 유물도 소장하고 있어요.



〈 청계사 동종 〉

▶ 청계사 동종

청계사 동종은 보물 제11-7호로 1701년(숙종 27년) 비구승 사인(思印)과 그 제자로 추정되는 명간, 계일, 여석 등이 함께 만들었어요. 동종은 용류와 종신으로 나뉘어 있어요. 용류는 두 마리 용이 종신을 움켜잡은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종을 매다는 고리 역할을 하지요. 종신은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됩니다.

상대는 풀잎과 꽃무늬가 화려하게 장식된 띠를 두르고 그 아래에 정사각형의 유곽 안에 9개의 종두를 심어 놓았고, 유곽과 유곽 사이마다 보살상이 연꽃 가지를 손에 쥔 채 구름 위에 단정하게 서 있는 모습이 배치되어 있어요. 중대에는 두 줄의 선을 넣고 그 아래에 종을 만든 사람과 시주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대는 연꽃무늬가 짜임새 있고 울동감 있게 장식된 띠를 두르고 있어요. 청계사 동종은 18세기 종의 형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동종 가운데 하나로, 종의 규모는 총높이 115cm, 몸체 96cm, 입지름 77cm, 두께 1cm이며 무게는 260kg이 넘어요.



〈 청계사 경판고와 목판경 〉

월암동에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리학을 들여온 안향의 사당이 있어요.



〈 안향 초상화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라 하면 불교와 기독교(개신교), 천주교 등을 말해요. 유교는 종교라기보다는 학문 내지 사상으로 받아들여져 유학이란 말이 더 익숙합니다. 성리학은 유학의 한 사조로 주자가 집대성했다고 해서 주자학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 문제를 철학적으로 해명하려는 새로운 유학이었어요. 이러한 성리학을 수용하고 고려의 개혁에 앞장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을 ‘신홍사대부’ 라고 해요.

고려 무인집권기에 들어서면서 문신들이 대거 제거되는 바람에 사상적으로 유학이 발전하지 못하고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어요. 13세기 초 몽골의 침입을 받은 고려는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40여 년간 끈질기게 저항했어요. 그러나 삼별초의 항쟁이 진압되면서 고려는 이후 80여 년간 원의 간섭을 받으며 나라를 유지하게 됩니다. 원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고려에 성리학이 유입되었어요. 고려에 성리학을 처음 소개한 사람은 충렬왕 때 안향이었어요. 이후 이제현, 이색 등이 성리학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성리학적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과거를 통해 관리에 등용되었어요. 이들 신홍사대부들은 고려의 현실을 비판하고 권문세족과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며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어요.



〈 사당 〉

■ 성리학의 도입과 안향

안향(1243~1306)이 관직에 들어설 당시 고려는 90여 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의 무신집권 체제가 막을 내리고, 몽고와 강화가 체결되어 전쟁도 끝이 났어요. 고려 역사에 있어서 또 다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시기였지요.

안향은 국가의 신흥관료 등용정책에 따라 과거를 통해 관직에 등용되고, 뛰어난 문장력을 인정받아 국사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빠르게 승진하였어요. 지방관관으로 있으면서는 민심을 어지럽히는 무당을 퇴치하는 등 합리적인 생각과 민심교화를 위한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어요. 또한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구휼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행정가로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시기까지 안향의 관직생활은 관료사회의 기강쇄신과 민생안정에 솔선수범하는 의욕 넘치는 행정관료였다고 할 수 있지요.

교육자로서 안향의 관료생활은 1279년 36세에 국자감의 국자사업에 임명되면

서 전환기를 맞이하였어요. 이때부터 “학문(유학을 의미)을 일으키고 인재를 양성하는 일을 자신의 임무로 삼는다”는 인생목표와 의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1288년 46세 때에 좌부승지와 밀직사좌승지를 거쳐 인재를 선발하는 동지공거의 직책을 맡았어요. 인재등용은 인재교육 못지않게 중요하죠. 특히 현실개선이 시급한 때에 인재교육에 이어 인재등용은 매우 절박하게 요구된답니다. 그 다음 해인 47세에 원나라가 고려에 설치한 고려유학제거에 임명되어 국가의 유학진흥과 교육부문의 명예수장이 되었어요. 이를 계기로 충렬왕이 원나라 행차할 때 수행하여 원나라의 수도(지금의 북경)에서 주자의 글을 접하게 되었어요. 이때 몽고어에 능한 조인규도 함께 했어요.

안향은 북경에 있는 5개월 동안 직접 주자의 책을 기록하고 공자와 주자의 초상화를 모사하여 1290년 봄에 귀국하였어요. 우리나라 성리학의 역사는 바로 안향이 주자학과 만난 때를 기점으로 삼고 있어요. 안향은 “주자는 그의 공로를 족히 공자에 비견할 수 있으니, 공자를 배우려는 사람은 먼저 주자를 배워야 한다”고 했어요. 그는 당면한 현실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론자체보다는 그 이론의 실천적 효과, 즉 도통의 확립과 유학의 부흥 및 적극적 교육 등 실천적 공로에 더 관심을 가졌어요.

안향은 1298년 56세 때에 집현전태학사, 수문전태학사 등의 관직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유학진흥과 교육사업을 담당했어요. 같은 해에 충선왕이 원나라 수도에 소환되는 길을 함께 할 때 시(詩)를 통해 고려정치에 대한 원의 간섭을 안타까워했어요. 이때 원나라 학관들과 토론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들은 안향을 ‘동방의 주자’라고 높이며 그의 초상화를 그려갔다고 해요.

안향은 말년에 자신의 사저를 국학의 문묘로 조정에 헌납하고, 봉급과 토지, 노비 100명 마저 국학의 진흥을 위해 헌납하였어요. 이러한 행적은 성공한 관료로서 축적한 재산을 부귀에 집착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에 기부하는 모범적인 행위

로 평가할 수 있어요. 이어서 1303년 61세 되던 해에 교육사업에 더욱 힘을 기울여, 국학에 섬학전을 설치하고 이로써 양현고, 즉 교육재정을 충당하였어요. 그는 “재상의 직책은 인재를 교육하는 것보다 시급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섬학전 설치를 이끌어냈어요. 성리학적 이념으로 무장된 인재로서의 관료를 관학을 통해 양성해야 한다는 교육론의 실천이라 할 수 있지요. 섬학전을 설치하여 국학을 일으킨 공로로 안향은 사후 1319년에 마침내 문묘에 배향되었어요.



〈 사당과 기념관 〉

안향은 죽은 후에 ‘문성(文成)’이란 시호를 하사받았는데, ‘도덕이 높고 견문이 넓어서 문(文)이라고 하고, 백성을 평안하게 하고 선정을 베풀어서 성(成)’이라 하였다고 해요. 배운 것을 실천하는 학자이자 정치가로 평가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향은 역관시절 보여준 청렴을 바탕으로 하여 당시 사회의 부조리를 바로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재상이 되어서는 “오직 삼가 감히 다투지 않았다”고 하듯이 원나라의 지배 하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억압과 폐단으로 얼룩진 고려의 정치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해요.

■ 의왕시 부곡동 안자묘

안자묘는 우리나라 최초의 주자학자로 평가되는 고려 말의 유학자 회헌 안향의 신위를 모신 사당이에요. 안자묘(安子廟)의 '안자(安子)'는 공자, 맹자, 주자와 같

은 성현에게만 부여되는 최고의 존칭입니다. 1917년 우리나라 유림들이 공자의 고향인 중국 쩐리에 있는 연성부(우리나라의 성균관)에 가서 안향 선생의 신도비명을 요청하였는데, 공자 76대손 연성공 공령이가 비문을 지어 말하기를, "성인의 도를 밝혀 600여 년 동안 빛나게 한 사람은 실로 우리 회헌(안향의 호) 안자다"라고 했어요. 도학이 높은 안향 선생이 안자라는 최고의 호칭을 받게 된 시초이지요. 안향은 고려 충숙왕 6년(1319) 주자학을 학습하고 국학을 진흥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문묘에 배향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자묘는 의왕시 월암동 42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의왕시에서는 비지정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어요.



〈 안자묘 전경 〉



〈 안자묘 편액 〉



〈 백운동 소수서원 〉





04

조선전기

여 백

04

조선전기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무인세력과 정도전 등 신진사대부 세력은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수도를 개경(지금의 개성)에서 한양(지금의 서울)으로 옮겼어요. 유교를 국가 통치의 근본원리로 삼고, 왕권을 확립한 뒤 세종 때에 이르러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문화가 융성해졌어요. 우리 의왕시에는 세종의 넷째 아들 임영대군과 관련된 역사와 문화유적이 있습니다.

능안마을에 세종대왕의 넷째 아들 임영대군의 묘역과 사당이 있어요.

임영대군 이구(1418~1469)는 세종대왕의 넷째 아들이자 수양대군(세조)의 동생입니다. 임영대군은 성격이 매우 활달하고, 문학과 역사를 두루 섭렵해서 논리가 뛰어나고 무예도 훌륭했다고 해요. 세조는 임영대군이 어질고 학식이 높은 선비와 같다고 칭찬했어요. 『예종실록』에 따르면, 임영대군은 항상 검소하고 재산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며, 사람을 대할 때 정성을 다하고 거짓과 꾸밈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성품을 따서 예종은 임영대군에게 정간(貞簡)이란 시호를 내려주었어요.

임영대군은 세종과 문종대에 무기를 연구하여 총통을 새롭게 고쳐 만들고 화차를 제작했어요. 형 수양대군이 단종을 물러나게 하고 왕위에 오르자 그의 통치를 보좌하였어요. 왕자들 사이에 골육상쟁을 경험한 그는 동기간의 우애회복에 노력하여 여러 조카들 가운데 인재들을 찾아내어 관리로 등용하기도 했어요. 세조가

화포제작을 주관한 경험을 살려 군기감을 조사토록 하자 그 잘못을 확인하고 군기감 운영을 바로잡도록 했어요. 또한 세조의 명을 받아 신숙주와 함께 효령대군을 위한 원각사 창건에 힘쓰기도 했답니다.

임영대군은 비록 궁중에서 자라고 생활하였지만 민간의 생활을 잘 알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정책에 반영하려 했어요. 예를 들면, 군사들에게 개인적으로 갑옷을 만들어 입게 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 그 제도가 시행되면서 백성들이 소를 잡아서 갑옷 비용으로 다 써버리게 되어 백성들의 원망이 많았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임영대군은 먹고 입는 것도 힘든 군사들에게 갑옷까지 만들어 입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세조에게 건의했어요. 이처럼 임영대군은 세조를 잘 섬기면서 백성들의 이로움과 해로움을 조정에 전하는 등, 백성들을 보살피고 사랑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요.



『정간공자산보행장』의 〈 정간공 임영대군 분산도 〉

임영대군은 예종이 즉위한 직후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임금은 그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며 5일 동안 조정에서 하는 회의를 폐지하고 장례의 필요한 물품을 충분히 제공해 주었어요.

후손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임금이 되자 임영대군은 이곳 능안마을에 내려와 숨어 지냈다고 해요. 세조가 함께 조정을 돌보자고 찾아왔지만 이를 끝내 거절하였으며, 매일 모락산 큰 바위에 올라가 망꺠레를 올리면서 한성을 걱정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모락산이란 이름이 생겨났다고 해요. 그리고 임영대군의 묘역을 중심으로 후손들이 모여 살면서 능안마을이라 부르게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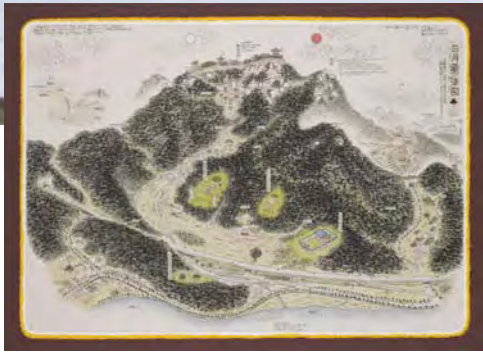


〈 장명등 〉

설명 : 장명등은 옥개석과 몸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면에 화창을 비교적 크게 만들었어요.

▶ 임영대군 묘역

임영대군의 묘역은 의왕시 내손동 능안마을 모락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요. 묘역의 가장 큰 특징은 묘역을 상계와 중계, 하계 3단으로 구분하여 조선 전기 왕실 묘역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입니다. 상계에는 상석과 묘표가 배치되어 있으며, 중계에는 장명등과 망주석을, 하계에는 문인석을 차례로 배치하였어요. 장명등과 문인석은 조선시대에 세워진 것이며, 묘표는 1924년에 다시 중건되었고, 망주석은 1981년에 묘역을 정비할 때 새로 교체되었어요. 광해군과 인조, 현종 때에는 임영대군의 묘역이 왕릉 후보지로 선정되기도 했답니다. 임영대군 묘역과 사당은 경기도지정문화재자료 제98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어요.



〈 임영대군 묘역 전경 〉

설명 :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묘역을 상계, 중계, 하계 3단으로 구분하여 조선 전기 왕실 묘역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 임근우 교수의 모락일월도 〉



〈 좌우 문인석 〉

설명 : 좌우의 문인석은 모두 왕을 알현할 때 차려입는 옷차림과 모자를 쓰고 있어요. 좌우 문인석의 형상이 서로 다른데, 오른쪽의 문인석은 콧수염이 있으며 오른 손을 위로 하여 홀대를 잡고 있으나 왼쪽의 문인석은 콧수염이 없고 왼손을 위로 하여 홀대를 잡고 있어요.



〈 임영대군 사당 전경 〉

▶ 임영대군 사당

임영대군사당은 묘역의 동쪽 구릉에 위치하고 있어요. 사당은 원래 종가 뒤편에 있었으나 몇 차례 이전하여 지금의 위치로 옮긴 것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를 갖추고 있어요. 지금의 사당은 2000년에 사당을 완전히 해체한 뒤 쓸 만한 재목만을 간추려 다시 원형대로 복원한 것이랍니다.

사당은 맞배지붕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기와지붕 양 옆으로 비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방풍널을 달았어요. 사당 주위로 기와

지붕 담장을 둘러 보호하고 정면에는 1칸 규모의

솟을대문을 세웠어요. 사당 실내 중앙에는 임영대

군의 신주가 모셔져 있고, 나머지 공간에는 제사

에 쓰이는 그릇과 옷이 보관되어 있어요. 사당의

한 칸은 월래 서고로 사용하면서 고문서와 유물을

두었는데 한국전쟁 때 모두 없어졌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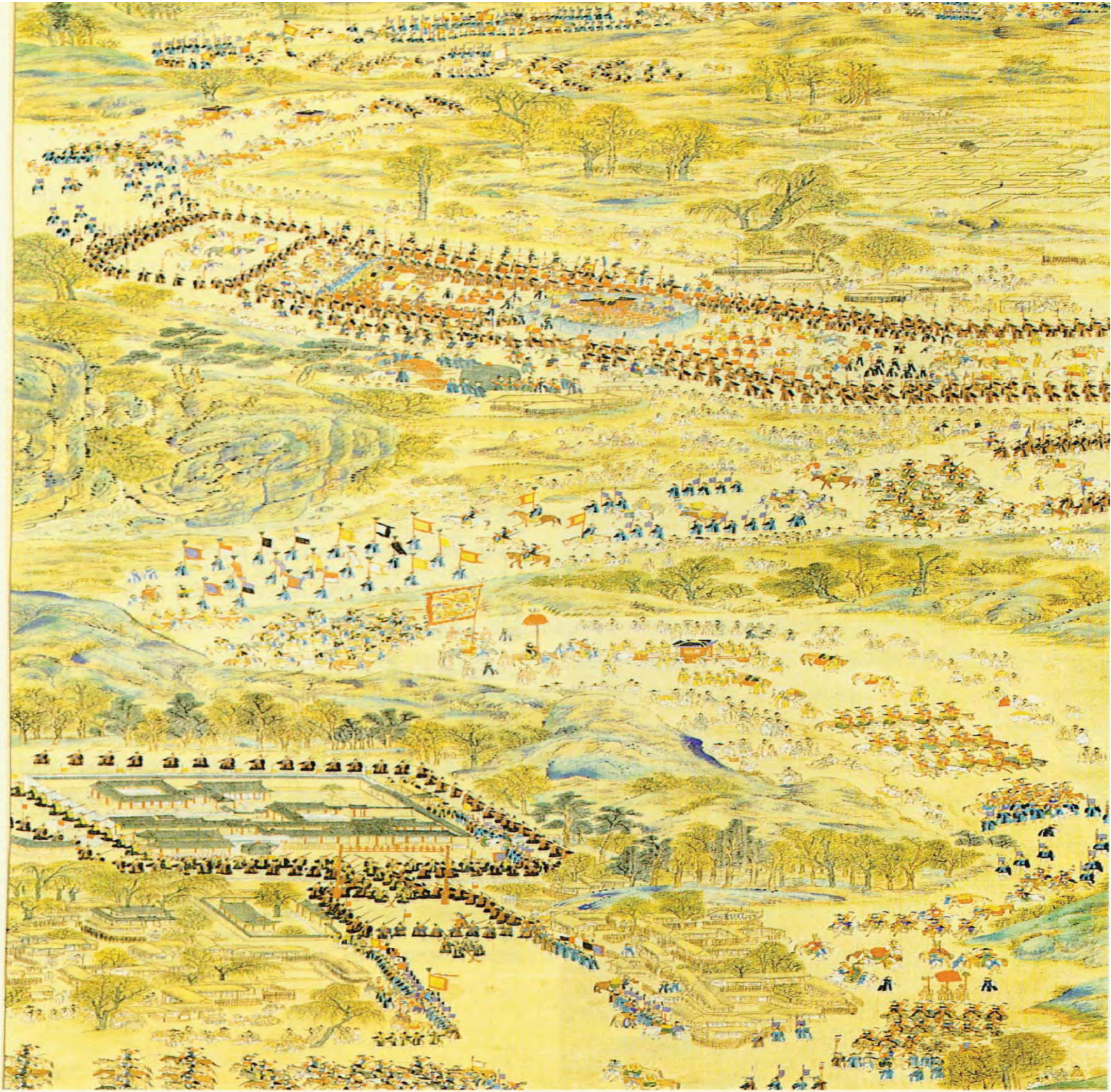


〈 임영대군 기신제 〉

사당에서는 매년 음력 1월 21일이 되면 전국의

후손들이 모여 임영대군 제사(기신제)를 지내고 있어요.

여 백



05

조선 후기

여 백

05

조선후기

17~18세기에 이르면 의왕지역 곳곳에 이미 동족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동족마을이란 하나 또는 몇 개의 동성동본 성씨가 마을의 중심이 되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해요. 16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형성된 의왕지역의 대표적인 동족마을을 살펴보면, 내손동 능안마을의 전주이씨, 학의동의 반남박씨, 오전동 오매기의 문화유씨와 등척골의 전주이씨, 왕곡동의 청풍김씨, 고천동 골우물과 이동 징계골의 함양박씨, 이동의 청주한씨, 부곡동 장안말의 평산신씨, 월암동의 성주도씨 등이 있어요. 이러한 동족마을들은 조선정부에서 벼슬을 하던 사람이 공을 세워 토지를 받거나, 주요 인물의 묘가 조성되거나, 관리가 낙향 또는 정치적 어려움을 피해 들어온 뒤 후손들이 모여 살면서 형성되었어요.

왕곡동 청풍 김씨 문중에서 6명의 정승을 배출했어요.

왕곡동 청풍 김씨 문중의 입향조는 조선 전기 무신 김우증이에요. 입향조란 어떤 마을에 맨 처음 들어와 터를 잡은 사람 또는 그 조상을 얘기해요. 김우증은 1506년에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왕으로 추대한 '중종반정'에 참여하여 정국 공신 3등에 올라 왕곡동을 중심으로 한 사방 십리에 달하는 사패지를 받았다고 해요. 이후 현재까지 왕곡동은 청풍 김씨의 대표적인 집성촌의 하나로 이어져오고 있어요. 왕곡동 마을 입구에는 <청풍김씨 묘문비>가 세워져 있고 마을 중심부

에는 청평군 김우증이 심었다는 은행나무가 500여 년 동안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왕곡동 청풍 김씨 문중은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반에 걸쳐 박세채, 송시열 등과 함께 노론의 정치적, 학문적 태도를 취했어요. 특히 18세기에 100년 동안 6명의 정승을 배출하는 황금기를 맞이했어요. 6정승이란 우의정(1703년) 김구를 시작으로 우의정과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1740년)을 지낸 김구의 아들 김재로, 역시 우의정과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1766년)을 지낸 김재로의 아들 김치인,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1793년)을 지낸 김구의 증손자 김종수 등 내리 4대에 걸쳐 배출된 4명의 정승, 그리고 김유(김구의 동생)의 아들로 우의정과 좌의정(1749년)을 지낸 김약로(넷째)와 우의정과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1759년)을 지낸 김상로(다섯째) 등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왕곡동 청풍 김씨 문중은 노론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의 하나로 조선 후기 특히 숙종과 영조 시기를 거쳐 정조에 이르기까지 가장 세력이 왕성했다고 할 수 있어요.

〈 백운산에서 내려다 본 왕곡동 마을 전경 〉



조선후기 영조는 봉당정치의 폐단을 바로잡고자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탕평정책을 실시했어요. 앞의 6정승들은 노론과 소론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영조의 탕평정책에 적극 참여했어요. 그들은 관직에 있으면서 매우 청렴하였고, 조정에서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주장하였으며, 탕평의 성과 가운데 하나인 균역법 제정에도 참여했어요. 하지만 영조대에 노론 벽파의 영수로서 사도세자(장헌세자, 정조의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주요 인물로 지목된 김상로는 정조가 즉위하면서 삭탈관직 되었고, 그 직계 자손뿐만 아니라 형제간의 자녀인 조카들까지 유배를 당하여 귀양길에 오르는 수난을 겪었어요.

왕곡동 청풍 김씨 문중은 많은 문집과 초상화 등 유물을 간직하고 있으며, 각종 석물과 신도비를 갖춘 왕곡동의 청풍 김씨 묘역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유교유적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특히 1858년 사은검동지사의 서장관으로 청나라의 수도 연경(지금의 북경)에 다녀온 김직연은 그 이듬해에 직접 『연사록』과 『연행록』을 각각 한문과 한글로 기록을 남겼어요.





〈 청평군 김우증이 심었다는 은행나무 〉



〈 김우증 신도비와 청평사 〉



〈 청풍 김씨 묘문비 〉

설명 : 현재는 왕림마을 입구에 옮겨 세워져 있어요.



〈 검제 김유 선생 초상화 〉

설명 : 검제 김유 선생 초상화는 보물 제1481호로 경기도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김직연의 『연행록』과 『연사록』



〈 김직연의 『연사록』과 한글본 『연행록』 〉

연행록과 연사록은 의왕시 왕곡동 청풍김씨의 후손인 품산 김직연이 청나라에 사은겸동지사의 서장관으로 다녀오면서 지은 한글 및 한문 필사본 기행문집이에요. 이는 1858년 (철종 9년) 10월 26일 출발하여 1859년 3월 20일 귀환하여 철종에게 복명하기까지 310명의 인원과 105필의 말이 98일 동안 총 2,013리

를 여행한 것을 기록한 방대한 책이에요. 연행록은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친절한 설명과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엮어 놓았으며, 연사록은 연행록과 같은 내용을 한문으로 쓴 것으로 공적인 보고를 목적으로 하여 정확한 날짜와 시간, 인명, 주고받은 시구 등 보다 풍부한 내용을 기록하였어요. 조선의 공식적인 청나라 외교사절단의 기록을 한글본과 한문본으로 기록한 김직연의 연행록과 연사록은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드문 사례이며, 특히 한글 본은 학술적 의미가 매우 큼니다.



〈 1881년에 발급된 김규홍의 호패 〉

설명 : 호패는 조선시대에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에게 발급한 지금의 주민등록증이자 신분증으로, 호구파악, 유민방지, 신분질서확립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었어요. 김규홍의 호패에는 1864년에 증광시 문과에 급제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안동권씨 묘역과 오봉산 전설

안동권씨는 왕곡동 청풍김씨 김인백의 처입니다. 오봉산 자락에 안동권씨의 묘를 조성한 뒤 김인백의 후손들 가운데 다섯 명의 정승이 배출되었다고 전해오고 있어요. 정조 때에 또 한 명의 정승을 배출하여 숙종 때부터 정조에 이르기까지 김인백의 후손들 가운데 모두 여섯 명이 정승을 지냈어요.



〈 오봉산 전경 〉





〈사근행궁터 전경 및 사근행궁터 기념비〉

고천동에는 정조대왕이 쉬어가던 사근행궁이 있었어요.

정조는 새 도시를 만들고 도읍을 옮기려고 수원에 화성을 쌓았어요. 이것은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장헌세자, 1735~1762)의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정조의 할아버지 영조(1694~1776)는 자신의 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굶어 죽게 했어요. 붕당 사이에 정치적 대립이 심해지자 영조는 탕평정책을 실시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민생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켰으나 당쟁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어요.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데 앞장 선 사람들은 오랫동안 권력을 장악해오던 벽파 사람들이었어요. 정조는 왕이 된 후 영조의 탕평정책을 이어받아 인재를 고

르게 등용하고자 애썼으나 쉽지 않았어요. 이에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고 그곳에 화성을 축조하고 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비참하게 죽은 아버지를 위로하는 한편 새로운 세력을 중심으로 개혁정치를 펼치려고 했어요.



〈 화성(수원성)의 화홍문과 방화수류정 〉

설명 : 왕륜벽소와 번와소에서 구운 벽돌과 기와를 이용하여 화성(수원성)을 쌓았어요.

화성축조는 1794년부터 2년 반에 걸쳐 진행되었어요. 새로운 도시 화성을 건설하는 데는 많은 사람과 물자가 필요했어요. 특히 성을 쌓는 데는 돌과 기와 벽돌이 많이 소용되었지요. 우리 의왕 지역에는 기와와 벽돌을 굽는 곳이 설치되었어요. 벽돌을 굽는 곳은 벽소(壁所)라 했고, 기와를 굽는 곳은 번와소(燔瓦所)라 했어요. 지금의 왕곡동과 고천동 지역 두 곳의 가마터에 기와 굽는 가마 6개와 벽돌 굽는 가마 3개가 설치되었답니다. 가마터 면적이 33만㎡(10만평)가 넘었어요. 벽소와 번와소에는 도청, 감동, 패장 등의 감독자가 있었고, 벽돌과 기와를 굽는 사람에게는 품삯으로 매일 쌀 3되와 돈 2전을 주었어요. 마부와 지계꾼, 모군들도 있었으며 일꾼과 작업장을 위해 임시 가옥과 모군막 등도 있었어요. 건물들은 산가에 지었고 이곳에는 지계꾼, 벽돌과 기와를 굽는 기술자 및 보조자들, 딸나무와 수레 및 수레를 끌 소도 있었답니다.



〈사근행궁 삼문(1939년)〉

설명: 학생들 뒤로 멀리 보이는 건물이 사근행궁의 입구인 삼문이에요.

〈1937년 3월 사근행궁 위치와 규모〉

▶ 위치 : 경기도 의왕면 고천리 272-2, 272-3번지

▶ 규모

- 행궁 면적 : 272-2번지 680평, 272-3번지 120평. 합계-800평

- 행궁 건물 : 정당-22평, 창고(1)-8평, 창고(2)-6평, 삼문-14평

※ 별궁의 규모는 자세히 알 수 없음.

사근행궁

임금이 멀리 행차 할 때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은 건물을 행궁 또는 주정소라고 해요. 『현종실록』에 따르면, 1655년 4월 조선시대 18대 임금 현종이 새벽에 과천을 출발하여 광주 사근천 주정소(지금의 의왕시 고천동 지역)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1760년(영조 36년) 사도세자는 온천을 갈 때 이곳을 지나면서 새로 위치를 변경하여 주정소를 설치했어요.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역을 수원으로 옮기면서 1790년에 이곳 주정소를 고쳐 짓고 사근행궁이라고 했어요. 정조는 사도세자의 묘역을 현릉원이라 이름하고 13차례나 다녀갈 때마다 이곳 사근행궁을 들려갔어요. 수원에서 넘어오는 고개 이름도 사근현에서 지지대로 바꿔 부르도록 했어요. 이 고개를 넘으면 현릉원이 보이지 않게 되니 발길이 더더진다 하여 지지대(遲遲臺)라고 이름을 바꾸었어요. 1795년 정조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에게 회갑연을 열어드리고자 수원의 화성행궁으로 가던 중 사근행궁에 머물러 어머니와 함께 점심수라를 들기도 하였어요. 정조 이후 순조와 고종도 현릉원을 찾을 때마다 사근행궁을 주정소로 이용했어요.

사근행궁터는 현재 의왕시 고천동주민센터(고천동 272-2번지 일대)가 자리하고 있는 곳이에요. 사근행궁은 본디 4개의 건물로 구성되었는데, 정당을 기준으로 북쪽에 별당이 있고,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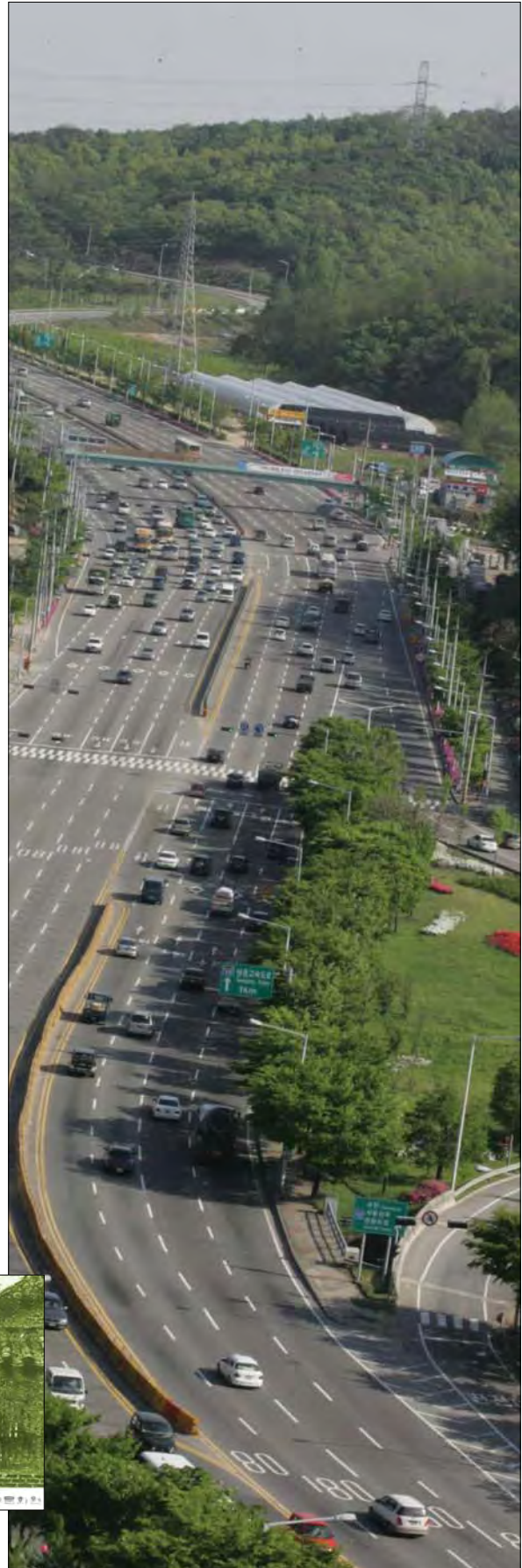


〈 시흥환어행렬도 〉

설명 : 1795년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와 함께 수원의 화성행궁으로 가는 도중, 시흥행궁에 다다른 모습이에요. 정조의 행렬은 윤 2월 10일 낮 사근행궁에 도착하여 점심을 들은 뒤 지지대고개를 넘어 수원 화성행궁으로 향했어요.



〈 지지대고개와 지지대비 전각 〉



당 앞쪽으로 좌우에 창고가 각각 하나씩 있었어요. 후에 응란헌 주정소라고도 한 것으로 보아 정당에는 응란헌이란 현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사근행궁은 정당 앞에 향나무가 있었고 흙과 돌로 쌓은 담이 둘러있었으며, 입구에는 대궐이나 관청처럼 가운데 정문을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하나씩 작은 문이 있는 삼문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사근행궁은 1914년 일제에 의해 의왕면이 설치되면서 의왕면사무소로 이용되다가 1937년에 삼문만을 남겨둔 채 철거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 그마저도 없어졌어요. 백운회라고 하는 사회단체에서는 1989년에 사근행궁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자 그 자리에 <사근행궁터>라고 쓴 표석을 세웠어요.

< 참고 > 의왕 시민의 날

10월 6일은 '의왕시민의 날'입니다. 의왕시민의 날은 정조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1789년 10월 6일(음력)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영여(靈輿)를 수원으로 옮기던 중, 예전에 사도세자가 온천을 가다가 머물렀던 주정소를 찾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경기 관찰사로 하여금 주민들 가운데 사도세자의 행차를 구경했던 사람들에게 쌀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였어요. 사근주정소도 대충 수리하도록 하였는데 이듬해인 1790년에 사근행궁이라 했어요.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정조의 효행을 본받고자 이날을 기념하며 1989년 의왕시의 출범과 함께 10월 6일을 '의왕시민의 날'로 정했답니다.





〈 하우현성당 전경 〉

1894년 천주교인의 피난처 하우현에 성당을 지었어요.

천주교는 17세기에 중국을 방문한 우리나라 사신들에 의해 서학으로 소개되었어요. 처음에는 서양학문의 한 부분으로 연구했어요. 18세기 후반 정조 때에 일부 실학자들이 신앙으로 천주교를 믿기 시작했어요. 정조는 천주교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하였으나 점차 서민층과 여성들에게도 교세가 확장되면서 순조 때에 이르러 천주교를 금지하고 대탄압이 가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우현에 언제부터 천주교인들이 살았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하우현은 주변에 높은 산이 있고 수풀이 우거져 있어 박해를 피해 살던 천주교인들에게는 숨어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답니다. 이때 천주교인들이 땅을 파고 굴속에서 살았다고 해서 토굴이라는 지명이 생겨나기도 했어요.

기록상으로는 충청도 홍주에서 광주 의일리(현 의왕시 학의동)로 이주해 살던

한덕운(1751~1801)이란 천주교인이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시기에 하우현 고개 넘어 묘론리와 둔토리(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지역에 천주교 신자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1845년에는 하우현에 살던 김준원이란 신도가 광주 포교에게 체포되어 남한산성에서 순교한 사실이 있어요. 1865년에는 프랑스의 루도비꼬 볼리의 신부(1840~1866. 한국이름 서몰레)가 이곳으로 와서 동굴 속에 숨어 지내면서 사람들에게 우리말을 배우고 천주교 교리를 가르치다가 그 이듬해 병인박해 때 순교하였어요.

이러한 사실로 보아 19세기 초 이래 하우현과 그 주변에 신자들이 거주하였으며, 중엽에 이르러서는 하우현 일대가 천주교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 하우현성당



〈 1894년 건축된 하우현본당 〉

하우현 성당은 100년이 넘는 유서깊은 역사를 가진 성당이에요. 1884년에 공소 공동체를 갖추었고 1893년에는 공소로 설정되었어요. 1894년에는 알릭스 신부

의 도움과 신자들이 모금한 돈으로 초가지붕의 목조 강당 10칸을 건축하였어요. 1900년에는 신자가 160명에 달했으며, 샤플랭 신부가 부임하면서 정식으로 하우현 본당이 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한강 이남 경기지역에서는 세 번째로 본당이 된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이후 공소와 본당을 거둬하던 하우현 성당은 광복 이후 1965년 김영근 신부 재임 시절에 성당 건물을 새로 지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우현 성당에서는 1903년경부터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어요. 1920년 윤예원 신부가 하우현으로 오면서 경애강습소가 설립되었어요. 윤예원 신부는 부임하기 전 황해도 은율본당에 있을 때 신자들에게 독립의식을 심어주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고 해요. 경애강습소는 4년제 초등교육기관으로 선교와 봉사, 애국심 함양 등을 교육의 중점으로 하면서 주민들의 문맹퇴치 운동과 신개회사상을 교육하였어요. 이 강습소는 윤예원 신부가 전임한 이후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다가 1930년 경 폐쇄되었어요.



〈 성교요리문답 〉

설명 : 카톨릭의 근본 교리를 문답식으로 엮은 책이에요. 이 책은 같은 이름의 한자본 책을 번역한 것으로 1902년에 간행되었어요.

■ 하우현성당 사제관

하우현성당 우측에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사제관이 자리하고 있어요. 부임한 신부가 생활할 수 있도록 1906년에 건축된 사제관은 처음에는 벽체를 거의 벽돌로 쌓고 서양식 지붕틀에 함석지붕을 올리고, 외부에 초석을 갖춘 기둥을 세워 회랑을 마련하였다고 해요. 이후 개보수를 거치면서 돌로 만든 벽체에 팔작 기와 지붕을 올렸어요. 당시 프랑스에서 온 신부들이 와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신부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설계되었어요. 우리나라와 서양식을 절충한 근대 건축양식의 하나로서, 2001년 사제관의 문화재 가치를 인정하여 경기도 기념물 제176호로 지정 보호하고 있어요. 사제관 앞뜰에는 프랑스 서루도비꼬볼리의 신부와 김영근 신부의 기념비가 각각 세워져 있어요. 2004년 의왕시에서는 사제관 건물을 복원하고 주변을 새롭게 단장하였어요.



〈 하우현성당 사제관 〉 복원 전 · 후사진

< 참고 > 의왕지역 최초의 기독교(개신교) 교회

오전리 오매기마을은 문화유씨 집성촌으로, 그 며느리 홍길순은 수원성결교회로 예배를 보러 다녔어요. 수원으로 예배를 보러 다니는 오전리 신도가 많아지자 오전리에 교회를 설립하기로 했어요. 1937년 약 20명의 신도들이 오매기 유근풍의 사랑방에 기도처를 마련하고 오전리 신앙공동체를 시작했어요. 1938년 유창희의 헌금을 기반으로 교회를 짓고 1939년 6월 오전리교회 헌당식을 올렸어요. 1941년 유택운 목사가 부임하였는데, 일제의 황민화정책에 따른 신사참배 강요를 비판하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수원경찰서에 구금되기도 하였어요. 1943년 경성구세단의 신경산 목사가 부임하여 임시로 간판을 구세단으로 하다가 1945년 8월 광복을 맞이했어요.



< 오전리교회 헌당식 기념(1939년 6월 5일) >



06 일제강점기

여 백

06

일제강점기

1910년 강제로 일제에 국권을 빼앗긴 후 우리 민족은 조선총독부의 강압적인 무단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조선총독은 입법권과 사법권, 행정권, 군사권을 모두 장악하고 헌병경찰을 동원해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토지를 비롯한 경제수탈을 자행했어요.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는 문화통치를 내세웠지만 이는 민족분열정책에 불과했어요. 일제는 중국 침략을 본격화하면서 민족문화를 말살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강제 수탈했어요.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이에 굴하지 않고 반일 독립운동을 전개했어요.

1919년 3월 31일 밤 의왕면사무소 앞에서 주민 800여 명이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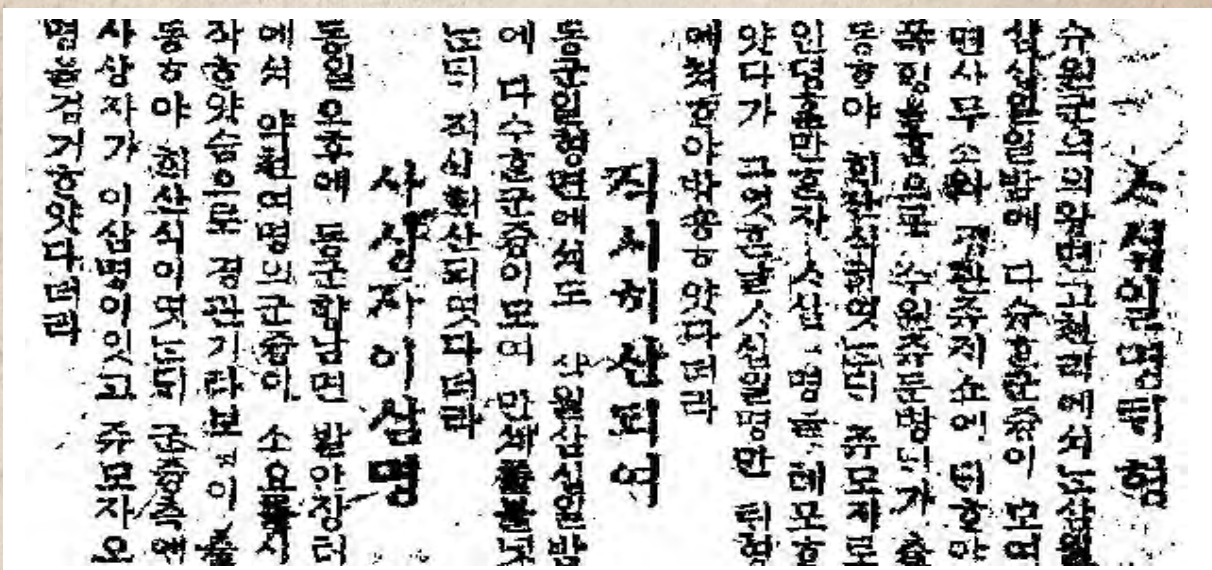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에 의해 촉발된 3·1운동은 서울과 평양에서 비폭력 독립만세운동으로 시작되었어요. 3월 5일 서울 송례문 앞 만세운동시위에는 청계동 출신의 성주복(당시 배재고등보통학교 4학년)도 참가했어요. 그는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어요.

3월 중순 이후 독립만세 시위는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었고, 3월 말부터는 일제의 무력적 탄압에 적극적으로 저항했어요. 지방에서는 몽둥이와 농기구를 들고 면사무소나 주재소를 습격하는가 하면, 일제 경찰과 군인들에게 돌을 던지며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어요. 4월에 들어서서는 독립만세운동이 더욱 폭력화 되었고, 일제 또한 경찰과 보병이 합세하여 발포하여 시위대를 탄압, 해산시키는 일이 이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어요.

3·1 독립만세운동의 여파가 의왕지역에까지 밀려든 것은 3월 말이었어요. 인근의 수원과 안양, 군포 등지에서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불렀고, 일제는 무장한 경찰과 보병을 보내 그들을 탄압하며 강제로 해산시켰어요. 1919년 3월 31일 밤 의왕주민 800여 명이 당시 의왕면사무소가 위치한 고천리로 모여 들었어요. 일부 시위군중들은 지지대고개에서 횃불을 높이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그들은 의왕면사무소와 경찰관주재소를 오가며 독립만세를 외치는가 하면, 나아가 그 두 곳을 습격하는 등 폭력적인 투쟁도 전개했어요. 그러자 수원에 주둔하고 있던 헌병대에서 병력 5명이 출동하여 경찰관과 함께 총을 쏘며 시위대를 해산시켰어요. 이때 시위대 3명이 부상당하고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던 40명이 넘는 주민이 체포되어 태형을 받은 뒤 4월 1일 석방되었어요.

〈 1919년 3월 31일 의왕지역 독립만세운동 보도 내용(『매일신보』, 1919년 4월 5일자) 〉



이와 같이 3·1운동 때 의왕지역 주민들은 단결하여 당시 의왕면사무소에서 의왕경찰관주재소를 오가면서 일제의 식민지배에 저항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어요. 지금의 고천동사무소는 당시 의왕면사무소가 있던 자리에요. 일제는 사근행궁을 의왕면사무소로 사용했어요. 우리는 이곳을 의왕지역의 3·1 독립만세운동의 중심지이자 정조의 효행이 서려있는 역사문화공간으로 복원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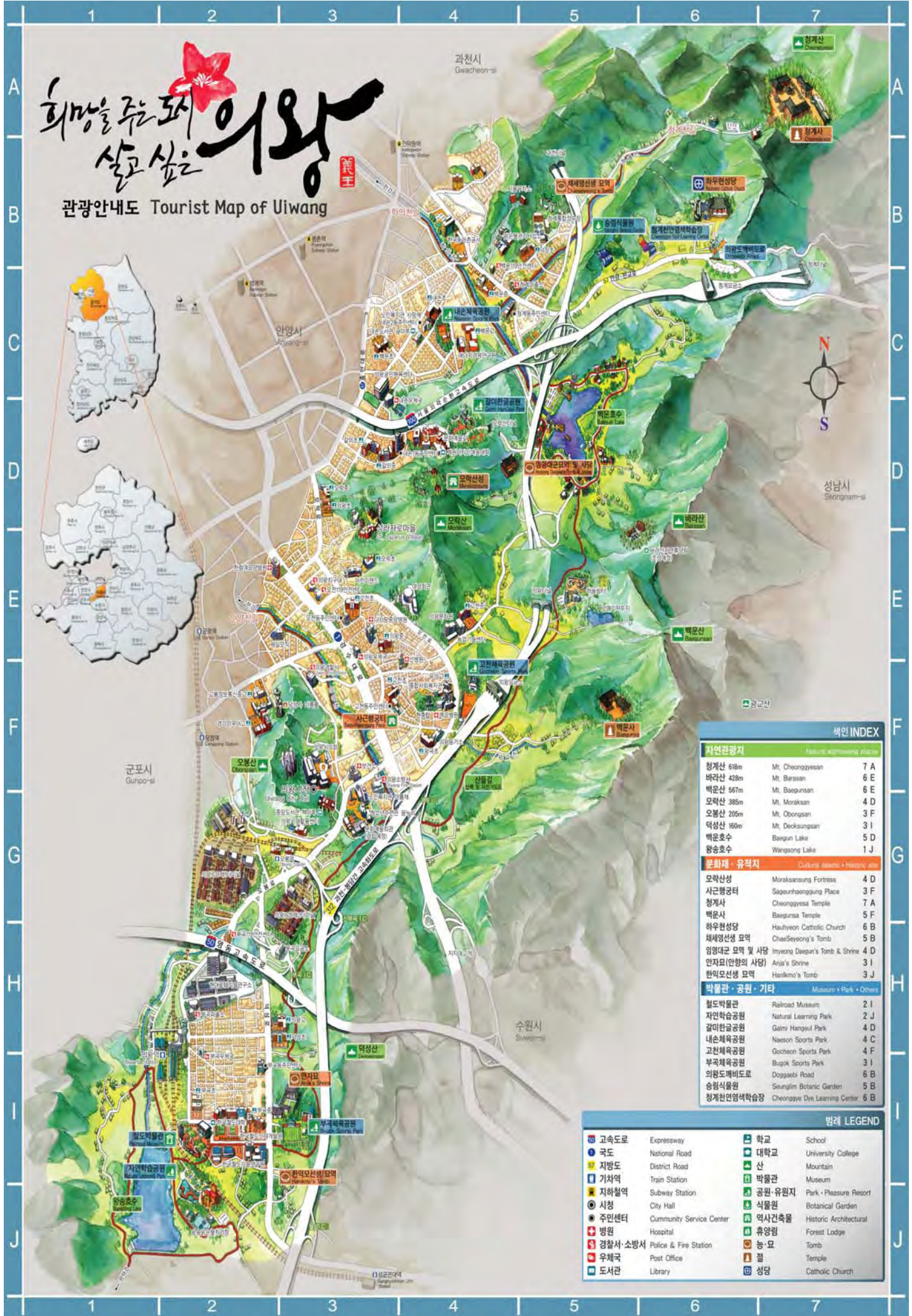
〈 월암동 과세지건취도 〉

월암동 과세지건취도

일제는 우리 국권을 침탈한 뒤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토지소유 관계를 근대적으로 정리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우리나라 사람들의 토지를 수탈했어요. 월암동 과세지 건취도는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고자 월암동 지역의 과세지 토지를 대상으로 개별토지의 상태와 소유자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만든 그림 장부예요. 현재 건취도 총 7매 가운데 6매가 남아있어요. 지도의 축적은 1:12,000이며, 전체 필지는 926필지 정도예요. 월암동 과세지 건취도는 경기도지역에서 최초로 발견된 자료이며, 토지조사부처럼 토지소유권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지는 못했으나 토지소유권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희망을 주는 도시 살고 싶은 의왕

관광안내도 Tourist Map of Uiwang



색인 INDEX

자연관광지		
Natural Attraction		
청계산 618m	Mt. Cheonggyesaeng	7 A
바라산 428m	Mt. Baerasan	6 E
백운산 567m	Mt. Baegunsan	6 E
모악산 385m	Mt. Moraksan	4 D
오봉산 205m	Mt. Obongsan	3 F
덕성산 150m	Mt. Deoksungsan	3 I
백운호수	Baegun Lake	5 D
왕송호수	Wangsong Lake	1 J
문화재·유적지		
Cultural Assets · Historic Site		
모락산성	Moraksansung Fortress	4 D
사근행궁터	Sageunhaenggung Place	3 F
청계사	Cheonggyesa Temple	7 A
백운사	Baegunsan Temple	5 F
하유현성당	Hauyueon Catholic Church	6 B
채세영선생 묘역	ChaeSeyeong's Tomb	5 B
임영대군 묘역 및 사당	Imyeong Daegun's Tomb & Shrine	4 D
안자묘(안함의 사당)	Anja's Shrine	3 I
한의모선생 묘역	Hanikmo's Tomb	3 J
박물관·공원·기타		
Museum · Park · Other		
철도박물관	Railroad Museum	2 I
자연학습공원	Natural Learning Park	2 J
갈미한굴공원	Galmihan-gul Park	4 D
내손체육공원	Naeson Sports Park	4 C
고천체육공원	Gocheon Sports Park	4 F
부곡체육공원	Bugok Sports Park	3 I
의왕도개비도로	Doggaebi Road	6 B
송림식물원	Songlim Botanic Garden	5 B
청계천연염색학습장	Cheonggye Dye Learning Center	6 B

범례 LEGEND

	고속도로	Expressway		학교	School
	국도	National Road		대학교	University College
	지방도	District Road		산	Mountain
	기차역	Train Station		박물관	Museum
	지하철역	Subway Station		공원·유원지	Park · Pleasure Resort
	시청	City Hall		식물원	Botanical Garden
	주민센터	Community Service Center		역사건물	Historic Architectural
	병원	Hospital		휴양림	Forest Lodge
	경찰서·소방서	Police & Fire Station		능·묘	Tomb
	우체국	Post Office		절	Temple
	도서관	Library		성당	Catholic Church

〈집필〉 박철하

〈편집/디자인〉 대신사

〈인쇄일〉 2009. 12. 21

〈발행일〉 2009. 12. 21

〈발행〉 의왕문화원

이 교재는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의왕시가 후원한 향토사 대중화 사업비로 제작되었습니다.